금산사 압수수색에 호남 불자들 강력 규탄

금산사 신도회, 11월 17일 전북경찰청 항의 방문

"종교 성역 공권력 침탈" 반발
전북경찰청에 책임자 처벌 요구
"전주KBS 중계탑 철거운동 전개"

조동제 전북지사장

지난 11월 7일 경찰이 조계종 제17교구본사 금산사와 군산 은적사를 압수수색한 데 대해 호남 지역 불자들의 분노가 거세다.

금산사 신도회(회장 한광수)를 비롯한 신도신행단체 불자들은 11월 17일 전북경찰청을 항의 방문하고 강경 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금산사 신도회 등 38개 신도신행단체는 전북경찰청 정문에서 발표한 성명서에서 금산사와 은적사 압수수색을 '종교탄압'으로 규정하고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금산사와 은적사는 수사기관의 요청에 성실히 협조해 왔으며, 임의제출에도 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며 "그럼에도 예고 없이 종교 공간에 대해 이뤄진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 110조 및 111조를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행과 기도의 공간에 대한 불법적 수색은 불자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며 "아직 진실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권력의 강제적 행사는 국민들과 불자들에게 불필요한 의혹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전북경찰청장의 사과와 수사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이번 사태를 '종교탄압'으로 간주하고 강경 대응할 방침을 밝혔다.

단체들은 "공권력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이번 사건은 10·27 법난을 떠올리게 하는 무단 침탈"이라며 "피의사실을 사전 공개하고 언론을 동행한 행위는 형법 제126조에 따른 피의사실공표죄에도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주KBS의 보도에 대해 "무죄추정 원칙을 위반한 일방적 보도"라고 규정하고 "전북 지역 10만 불자들은 연대해 수신료 거부운동과 모악산 KBS중계탑 철거운동에 나설 것"이라 경고했다.



금산사 신도회를 비롯한 신도신행단체 불자들이 11월 17일 전북경찰청을 항의 방문했다.

이날 성명 발표에 참석한 한 불자는 "수행과 기도에 집중해야 할 금산사가 수사대상이 된 현실이 안타깝다"며 "공권력의 정당한 절차와 종교 공간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북경찰청 항의 방문에는 금산사 신도회, 포교사단 전북지역단 등 38개 신행단체 관계자들이 함께했으며, 향후 대규모 탄원운동과 촛불법회 등 대응 수위를 높여 갈 계획이다.

청년들 '캠프+템플스테이'에 빠지다

지리산 화엄사, 첫 캠플스테이
11월 15~16일 순천대 등 참여
12월 말까지 총 4회 운영 예정

지리산 화엄사가 20대 청년들을 위해 캠핑과 템플스테이를 결합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조계종 제19교구본사 화엄사(주지 우석 스님)는 11월 15일부터 16일까지 화엄원에서 아웃도어 템플스테이 '캠플스테이 – 하신화심(下身華心)'을 진행했다. '캠플스테이'는 야외에서 텐트를 치고 숙박하는 '캠핑'과 사찰 체험을 결합한 신개념 템플스테이로, 화엄사가 올해 처음 선보이는 청년 참여형 프로그램이다.

이번 1회차에는 호남대와 순천대 불교동아리 학생 30명이 참여해 화엄원 마당에 직접 텐트를 설치하는 것으로 일정을 시작했다. 처음 텐트를 쳐 보는 학생도 많았지만 서로 도우며 금세 30동의 텐트촌이 완성됐다.

한미소 호남대 불교학생회장은 "처음 텐트를 쳐 봤는데 힘들었지만 친구들과 함께하니 너무 재미있었고 색달랐다"며 "오늘 좋은 추억을 쌓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조계종 제19교구본사 화엄사는 캠핑과 템플스테이를 결합한 '캠플스테이' 첫 행사를 11월 15일부터 1박 2일 동안 진행했다.

저녁 공양과 예불을 마친 뒤에는 화로 앞에서 떡과 고구마, 마시멜로를 구우며 힐링 시간을 가졌다. 떡이 타거나 고구마가 설익기도 했지만 "핫초코 한 잔이면 다 해결된다"며 학생들은 실패마저 즐거운 추억으로 만들었다.

주지 우석 스님은 "캠플스테이는 몸을 낮추고 불편함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시간"이라며 "오늘은 불교 공부보다 고구마 한 입, 떡 한 입이 여러분에게 더 귀중한 수행이 될 것"이라고 덕담을 전했다.

이어 "요즘 청년들이 잠시 멈춰 자신을 돌아보기가 쉽지 않다. 이곳에서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바람과 흙, 불빛을 있는 그대로 느껴 보길 바란다"며 "자연을 받아들이는 힘은 마음을 단단하게 해 준다. 사찰은 언제든지 편하게 들러 쉬어 갈 수 있는 열린 공간이라는 것도 기억해 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홍보국장 범정 스님은 "이번 캠플스테이는 주지 우석 스님의 발원으로 처음 시작된 프로그램"이라며 "20·30대 청년들이 사찰에 와서 텐트를 치고 머무는 '캠핑의 한 장면'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량을 열어 놓자는 것이 스님의 첫 취임사에서부터 강조된 방향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요즘 청년들은 친구들과 캠핑이나 글램핑을 즐기지만, 사찰은 왠지 어렵고 조용해야 한다는 이미지가 크다. 그렇다고 캠핑 분위기와 사찰 이미지가 충돌해서는 안 되기에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도 참고하며 조심스레 준비했다"고 말했다.

화엄사는 12월 말까지 총 4회(회당 1박 2일) 캠플스테이를 운영한다. 2회차는 11월 29일~30일(토·일), 3회차는 12월 5일~6일(금·토), 4회차는 12월 31일~1월 1일(수·목) 진행된다. 각 회차 정원은 30명이며, 20~30대 대학생과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참가비는 무료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경남불교 독립운동, 오늘에 되새기다

19일 김해독립운동 연구발표회
도명 스님, 범어사 독립운동 조명

경남지역 불교계의 독립운동사를 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김해독립운동기념사업회(회장 김광호)는 11월 19일 김해 도시재생지원센터 강당에서 '제3회 김해 독립운동 연구발표회'를 개최했다.〈사진〉 이번 발표회는 '민족의 독립을 위해 나선 경남 불교계'를 주제로, 불교계와 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 항일운동의 역사와 불교계의 역할을 재조명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이 자리에는 김광호 김해독립운동기념사업회장과 도명 스님(범어사 성보박물관 부관장), 법장 스님(삼보조계종 총무원장), 이순일 식민사관청산경남연대위원장, 이광희 김해독립운동연구소장, 정영도 경남향토사연구회 김해지회장, 이헌동 김해근대역사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도명 스님은 '경남지역 불교계의 독립운동'을 주제 발제했다. 스님은 제국주의의 충돌 속에서 조선 불교가 마주한 역사적 기로, 일제의 침략과 불교탄압, 범어사를 중심으로 형성된 호국불교의 전개를 객관적 자료와 문헌을 통해 상세히 제시했다.



특히 범어사 명정학교·지방학림·불교전문강원이 지역 지식인과 청년을 길러 낸 민족교육의 중심지였음을 강조하고, 1919년 범어사 청련암에서 독립선언서를 등사해 동래장날 만세시위를 이끈 스님과 학생들의 참여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토론자인 정영도 경남향토사연구회 김해지 회장은 "불교계의 독립운동을 공감하기 쉽게 정리했다"며 "조선 불교가 항일운동을 펼칠 수 있었던 사상적 배경 설명이 보완된다면 더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40대 특집 '나는 절로, 수덕사' 성료

15~16일 열려, 3커플 매칭
1000명 지원에 20명 참가

'40대 특집'으로 진행된 '나는 절로, 수덕사'가 세 커플을 매칭하고 회향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도륜 스님)은 11월 15~16일 예산 수덕사(주지 도신 스님)에서 청춘남녀 만남 템플스테이 '나는 절로, 수덕사'를 개최했다.〈사진〉 40대 특집으로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1000명이 넘는 사전 신청자 가운데 선발된 남녀 각 10명, 총 20명이 참가해 늦가을 산사에서 뜻깊은 만남을 가졌다.

입재식에서 수덕사 주지 도신 스님은 "오늘 인연이 내년 이맘때 결실로 이어지길 기도하겠다"고 축원했다. 이어 스님은 커플 탄생을 기원하며 금일봉을 전달했다.

입재식을 마친 참가자들은 수덕사 재무국장 현중 스님의 안내에 따라 국보인 수덕사 대웅전을 비롯해 사찰 곳곳을 둘러봤다. 이어진 '매력 발산 시간'에는 장기자랑과 자기소개가 이어져 참가자들의 열띤 호응을 이끌어 냈다. 프리다이빙을 즐기는 참가자는 노래를 열창했고, 또 다른 참가자는 즉석 10초 드로잉으로 '사랑의 탑'을 그려 웃음을 자아냈다.



남자 7호는 "스님의 추천으로 용기를 내 참가했다"며 "서로 진정성 있게 바라본다면 좋은 인연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여자 9호는 "40대가 된 후 소개 자리가 크게 줄었는데 여러분을 만날 수 있게 되어 반갑다. 사찰에서 진행되는 만큼 깊이 있는 만남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저녁 시간 동안 차담, 산사 체험 등을 통해 마음을 열어 갔다. 이튿날 오전 진행된 선택의 시간에는 최종 3커플이 매칭되는 성과를 거뒀다.

수덕사=유재상 충청지사장

보원사지 사역 확인 '고려 최대 승방지'

11월 19일, 서산 보원사지 설명회



고려 시대 최대 규모의 승방지로 추정되는 서산 보원사지 발굴 현장이 공개됐다. 서산시는 11월 19일 보원사지에서 제12차 발굴조사 공개설명회를 개최했다.〈사진〉 이번 조사에서는 고려 시대 승방지 건물지군 6개소와 담장지 11기, 석축 7기, 배수로 8기 등 다수의 유구가 확인됐다.

특히 승방지가 최초로 확인된 점이 가장 큰 성과로, 고려 왕실의 후원을 받아 선교승 1000여 명이 머물렀다는 문헌 기록을 뒷받침하는 유적으로 평가된다. 보원사 운영위원장 정경 스님은 "승방지로 사찰 운영 범위를 확인한 점이 매우 뜻깊다"고 밝혔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화엄사 빛고을포교원, 개원 4주년 법회

11월 15일 대웅전서 봉행



화엄사 빛고을포교원(주지 연성 스님)은 11월 15일 대웅전에서 '개원 4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법회에는 화엄사 주지 우석 스님, 화엄사 빛고을포교원 회주 덕문 스님, 주지 연성 스님 등 사부대중이 함께하며 4주년을 축하했다.

주지 연성 스님은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서로에게 선물이 되는 도량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울산 해남사, 8차 금강경 독송 정진 회향

11월 12일, 441독 정진 회향



영축총림 통도사 울산포교당 해남사(주지 혜원 스님)는 11월 12일 '제8차 금강경 독송 21일 정진대법회'를 회향했다.〈사진〉 해남사는 지난 10월 22일 8차 정진대법회에 입재해 21일 동안 매일 〈금강경〉 21독씩 총 441독을 독송하며 수행의 생활화를 실천해 왔다.

주지 혜원 스님은 인사에서 "여덟 번째 〈금강경〉 정진은 도반들의 합심과 원력 덕분"이라고 밝혔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가야불교문화원, 제12회 산사음악회 성료

11월 15일 김해 수릉원서



사단법인 가야불교문화원(이사장 혜수 스님)이 주최하고 김해불교사암연합회가 주관한 '제12회 시민과 함께하는 도심 속 산사음악회'가 11월 15일 김해 수릉원 특설무대에서 열렸다.〈사진〉

혜수 스님은 봉행사에서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의 광명이 시민 한 분 한 분의 삶에 환하게 머물길 바란다"며 "오늘 음악회를 통해 소망하는 모든 일이 원만히 이루어지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남원 관음사, 장애인 단체에 자비나눔

3개 단체에 쌀 · 라면 전달



여러 해 동안 부침을 겪었던 남원 관음사(주지 법현 스님)가 정상화의 첫 행보로 지역 장애인들을 위해 자비나눔을 펼쳤다. 남원 관음사는 11월 18일 지역 내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쌀 1000kg(10kg 100포)과 라면 50박스를 전달했다.〈사진〉

이날 전달된 물품은 남원장애인종합복지관, 꿈들에장애인협회, 사회복지법인 햇빛 등 3개 단체에 고루 배분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평택 수도사, 문화예술제 성료

깨달음체험관 8주년 맞아



평택 수도사(주지 적문 스님)는 11월 15일 해수관음상 앞 특별무대에서 '원효대사깨달음체험관 개관 8주년 기념 원효대사 문화예술제'를 개최했다.〈사진〉

이날 행사에는 덕운 스님(안성 석남사 주지)과 법현 스님(보국사 주지), 이성호 평택부시장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주지 적문 스님은 "체험관이 세대를 아우르는 평화의 등불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홍승도 경기남부지사장